# 금남로에서

정재현

## 통합·균형의 리더십 절실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 경선 때 격렬하게 싸웠던 힐러리를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지휘하는 국무장관에 발탁했다. 오바마는 힐러리에게 국무부 인사권 100% 부여, 대통령 독대권 보장 등의 예우(?)까지 갖췄다.

오바마가 한때 최대 정적(政敵)이었던 힐러리를 껴안은 것은 통합의 정치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통합의 리더십 만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미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는 정권 인수팀에 공화당 인사들을 중하위 정부직에도 폭넓게 기용할 것을 지시했다.

### 심화되는 계층 간 갈등

젊은 40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참신한 행보를 보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임기가 보장된 지방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까지 전 정부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21일 전남대 병원 이사회는 서대석 상임감사에 대한 면직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서 감사가 휴일에 식사비 명목으로 110만원 가량을 병원 법인카드로 부당 결제했다는 것이 면직 이유다.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분명 부당행위이다.

하지만, 이사회를 열어 면직까지 해야 할 중대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 병원 안팎에서는 정권이 바뀐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 정부 시절 임명됐던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들의 사퇴를 종용함에 따라 서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 사회는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남과 북,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등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계층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갈등과 대립의 골을 메우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난국을 헤쳐갈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로, 그에 걸맞은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문제는 전대미문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 해답은 말 그대로 역대 정권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대통합의 리더십이다. 이념과 지역, 계층을 뛰어넘는 통합과 균형의 정치만이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통합과 균형이 없는 리더십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신뢰 없는 정책은 무슨 소리를 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대통령이 아무리 균형발전을 외쳐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외화 유동성 확보 등을 요구해도 일선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도 정부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보다 강력한 '쓰나미' 수준이다. 특히 경제위기는 급속히 실물부분으로 옮아가며 국민생활을 옥죄고 있다. 이런 난국에 지방

### 약발 안 먹히는 정부정책

국립대 상임감사 자리까지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쫓아내는 속좁고 편협한 정치력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꼬이게만 할 뿐이다. 협소하게 자기 사람에만 의지해서는 난국을 헤쳐나갈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실력도 있고 도덕성도 갖춰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국정을 담당할 때 갈등과 분열은 치유될 수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인물들이 정책을 제시할 때 시장과 국민은 따른다.

세종대왕은 자신의 양위를 반대했던 황희 정승을 중용해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 세종대왕이나 오바마처럼 필요하다면 한 때의 적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내는 게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다. 결국 통합과 균형의 리더십만이 대한민국호(號)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도 하다.

〈편집부국장〉 jhjung@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사 설

# 정부, F1대회 '지원' 끝까지 외면할 건가

전남도가 2010년부터 개최하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은 정부의 지원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엊그제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F1국제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와 국민적 관심을 강조했다. 국가와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초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정부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F1 및 모터스포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과제는 적지 않다. 수도권이 아닌 전남에서 개최되는 여건상 자칫 지역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와 전남도, 시민단체간의 이견도 극복해야 한다. SOC 확충과 인프라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효과는 엄청나다. F1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행사로 꼽힌다. 우리나라와 기업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재인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등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현실적 제약이다.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공공성 부족과 재정의 과도한 부담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코리아 F1국제포럼'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전남에서 F1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도전해볼만한 프로젝트다. 자동차와 관광서비스산업을 결합시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F1대회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지역사회는 정부에 대한 설득과 함께 'F1지원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F1대회에 전남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농축산 소득 '반 토막' 회생대책 서둘러야

올해 전남 농축산 농가의 실질소득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면세유와 사료, 농약 등 영농비가 크게 오른 반면 농축산물 가격은 폭락했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농가소득까지 대폭 감소해 농축산 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농촌의 경영난은 심각하다. 600㎏ 짜리 수소의 경우 1년 전 마리당 48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7% 떨어졌지만 사료 값은 50% 이상 치솟았다. 경영 악화에 따라 올해 전남 한우농가의 총소득은 800억원으로 지난해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낙농가의 소득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채류 가격도 예년보다 30~40% 떨어지면서 실질소득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농업소득이 반 토막 난 것은 품목에 따라 생산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영농비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비료, 사료, 영농자재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30~113%나 올랐다. 더 큰 문제는 농업소득이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2012년까지 농업총소득이 한해 평균 8.2%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전망에선 농축산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축산업이 무너지면 농가에 직접 타격을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서민들의 먹을거리 부담이 커지고 국민건강에도 큰 위협이 된다.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외국산 저질 농산물 파동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농축산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가장 낮은 1차산업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

정부는 영농비는커녕 생계비 마련도 막막한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각종 농자재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료안정기금 등 농업경영안정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저생산비는 보장해줘야 농사를 지을 맘이 생기지 않겠는가.

## 은펜칼럼

최영태

# 거점대학의 위상과 지역 경쟁력

2년 전 이 지역 소재 모 대학 교무처장을 역임한 교수 한 분이 처장 임기를 거의 마칠 때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교무처장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전남대가 잘 되어야 이 지역 대학이 모두 잘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전남대가 좀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다."

이 분의 주장은 전남대 교수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여기서는 왜 그 분이 전남대같은 지역 거점대학이 잘 되어야 이 지역 대학들이 모두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는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입시철이 다가오면 이 지역 소재 대학과 교수들은 신입생 확보 문제로 고군부투하며,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곤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원 채우는데 골몰해야 하고 해당 대학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보다는 학생 모집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정원 확보에 조금 여유가 있는 대학들도 학생 질의 저하 문제로 고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안타까운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이 지역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지역 소재 대학들의 낮은 취업률에서 찾아야겠지만, 직접적 원인은 수험생들의 광주·전남 탈출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모 교무처장이 전남대의 분발을 촉구한 것은 지역거점 대학이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 수도권 러시 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광주와 전남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숫자가 각각 3천160명과 2천759명이었다고 한다. 만약 이 지역의 거점대학인 전남대가 이들 학생들 중 약 20% 정도만이라도 전남대로 그 방향을 틀 수 있게 만든다면 그 영향은 이 지역 모든 대학들로 선순환하게 된다. 전남대의 질적 향상이 이뤄짐은 물론이요 전남대에 입학할 1천200여명의 학생들이 이 지역 소재 B대학으로, B대학 지망생은 C대학으로, C대학 지망생은 D대학으로 옮겨 이 지역 모든 대학이 그만큼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알다시피 최근 들어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여러 학문 분야들이 속속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 전문대학원의 정원 대부분이 이 지역 대학 출신들이 아니라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수도권 대학 출신들은 대부분 졸업 후 일자리를 수도권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이 지역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료 및 법조 분야마저 사각지대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이 지역이 살 길 중 하나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쟁력 강화의 첫 번째 순위로서 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 지역 수험생의 숫자 감소와 열악한 재정상황 등 제반 조건들 때문에 대학 구성원만의 노력으로 명문대학을 만드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당연히 대학 자체의 분발이 우선해야겠지만 더불어 지역민들의 대학 사랑운동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남대 인문대학장·
2008년 3분기 수상자〉

## 기 고

전주언

# 어린이 생태학습 도서관 개관에 부쳐

흔히들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창의적인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습득이 개인의 성공은 물론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책은 지식 전달과 창의력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꼽힌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 책은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고 상상력을 키워가기 때문이다.

단 한 권으로도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책. 그토록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책을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놀이터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이러한 고민은 접어도 될 것이다.

광주시 서구는 오늘(11월26일), 이같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문을 열게 된다. 이 도서관은 풍암생활체육공원에 대지 2,268㎡,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1,323㎡ 규모로 신축됐다. 어린이 열람실과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자열람실·이야기방, 디지털실, 상설·기획 전시실 등을 갖췄으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생태관련 도서를 구비하고 생태연못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사회를 만들고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정을 체결, 이 도서관이 전국 시범 환경홍보관으로 육성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개관 기념 특별 기획전으로 마련한 지리산 곤충전과 같은 각종 생태관련 전시물 및 운영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받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까지 발품을 팔지 않고서도 다양하고 수준높은 전시회를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도서관을 나서면 바로 공원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풍암생활체육공원에는 다양한 수목, 야생화 등이 식재돼 있고 잘 다듬어진 산책로와 야외무대, 주민들이 결혼이나 출산, 승진 등 뜻깊은 날을 기념해 식수를 한 행복을 가꾸는 동산이 가꿔져 있다. 최근에는 8만여본의 튤립도 심었다.

또 서구의 생태계 보고(寶庫)이며 서구 8경인 풍암호수와 금당산을 풍암생활체육공원과 더불어 녹색의 생태환경벨트로 조성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도서관 인근에 식물관을 만들어 유치원생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딱딱한 분위기에서 책만 읽는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를 뒀다. 엄마가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그야말로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곳.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보며 다양한 생태체험도 하고 주변 잔디밭에 앉아 가족들이 오순도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오늘 갔더니 내일도 또 오고 싶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도서관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지향하는 바다.

어린이들의 정서와 삶, 문화를 보듬어 안는 요람이 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푸른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광주시 서구청장〉

## 無等鼓

### 태백산맥

1천만 부 판매 돌파라는 한국출판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며 민족소설로 우뚝 선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20세기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설문학으로 평가 받는다.

한반도가 해방과 분단을 맞은 1948년부터 6·25전쟁과 휴전 후 분단이 고착화된 1953년까지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민족사의 매몰시대', '현대사의 실종시대'라 불리는 역사에 정면으로 부딪혀 1980년대 최대 문제작이 된 작품이다. 그의 또 다른 작품 '아리랑', '한강' 등과 함께 '살아 있는 현대사 교과서'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태백산맥'은 해방 이후 분단문학의 역사가 일구어낸 거대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1980년대를 보낸 이 땅의 젊은이 중 이 책을 읽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다. 당시 TV 연속극이나 스포츠 이야기보다 이 소설의 내용을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할 만큼 인기를 누렸다.

소설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태백산맥 문학관'이 지난 21일 소설의 무대인 보성군 벌교읍에 문을 열었다. 작가와 부인 김초혜 시인을 비롯해 정지아·이원규 등 문인들과 출판인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불어로 번역, 세계에 알린 번역가 조르주 지겔마이어 씨도 자리를 함께 했다.

소설의 무대인 제석산 앞에 대지면적 4천359.6㎡, 연면적 1천375㎡ 규모로 건립된 태백산맥 문학관은 단일 문학작품을 위해 지어진 '국내 최대 작품 전시관'이다. 작가의 육필원고와 증여작품 등 총 144건, 623점이 전시돼 소설의 출간 과정과 출간 이후의 상황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외벽에 새겨진 작가의 친필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는다. '살아있는 현대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 美, 한국산 쌀 인기 틈타 '가짜' 판쳐

얼마전 미국에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식사를 하던 중 쌀 이야기가 나왔다. 밥을 먹으면서 쌀은 어느 나라 것을 사먹냐고 물었더니 주로 국내산과 미국산 쌀을 먹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까지 가짜 한국산 쌀이 나돈다는 것이다.

교민들이 워낙 한국산 쌀을 선호하다보니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이들을 노리고 미국 칼로스 쌀을 '호남쌀', '전라도쌀', '이천쌀', '여주쌀' 등 한글 브랜드를 만들어 판다는 것이다. 물론 포장에는 미국산이라고 씌여져 있지만 처음 사먹는 사람들은 한글로 표기돼 있으니 한국 쌀인줄 알고 사먹기 일쑤라고 한다. 미국인이 아예 미국내에서 그렇게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달리 막을 길이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격도 한국산 쌀의 절반 수준에 팔고 있는데, 장기화되면 진짜 우리 쌀의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우려다. 이같은 일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서든 발생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노정숙·광주시 서구 농성2동

# 컴퓨터 부팅 1분 후 모니터 켜 에너지 절약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은 주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주부들이 잘 모르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에너지 절약법을 소개한다.

우선 컴퓨터 문제다. 모니터는 부팅 1분 후에 켜자. 부팅하는 동안 모니터가 부팅 진행과정을 표시하면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둘째, TV 볼륨은 낮게 하자. 사람들은 TV 볼륨이나 화면 밝기가 전력을 소모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또 TV는 꺼져 있을 때도 리모컨 신호를 받기 위해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전력 소모가 일어난다.

셋째, 비데 뚜껑은 덮자. 가정에서 비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를 내려놓는 것이 대기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넷째, 스팀다리미 물은 온수로 하자. 다리미에 찬물을 부으면 데우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므로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이 방법이다.

다섯째, 냄비 바닥은 반드시 닦자. 냄비 바닥이 젖어 있으면 물을 증발시키느라 추가 에너지가 들어가므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강명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 |
|---|---|---|---|---|---|
| 편집국안내 | | 사회2부 | 2200-692 | 경영지원국 | 2200-511 |
| 〈대표 FAX | 222-4918〉 | 〈FAX | 227-0118〉 | 〈FAX | 222-8005〉 |
| 편집부 | 2200-672 | 문화생활부 | 2200-661 | 광고마케팅국 | 2200-521 |
| 정치부 | 2200-634 | 여론매체부 | 2200-679 | 〈FAX | 227-9500〉 |
| 경제부 | 2200-641 | 체육팀 | 2200-663 | 디자인 | 2200-536 |
| 사회1부 | 2200-612 | 사진부 | 2200-691 | | |
| 〈FAX | 222-4267〉 | 조사부 | 2200-571 | | |

| | |
|---|---|
| 문화홍보국 | 2200-541 |
| 〈FAX | 222-0195〉 |
| 독자서비스국 | 2200-551 |
| 〈FAX | 227-9500〉 |
| 서울지사 | 02-773-9331 |
| 〈FAX |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